'좋은 방송 만들기' 사부대중 한 뜻

btn·BBS 후원회, 소식지 발간·제작비지원등 보시 열심

BBS와 btn의 후원회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양방송사의 후원회는 경쟁적 방송시장에서 종교방송으로의 특수성을 살려주는 주도적 기간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회장 상륜스님)는 6월 현재 3천5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매달 1천5백~1천6백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되고 있다. 예치액만도 2억여원에 이르고 매달 6백만원을 편성제작부에 프로그램 후원비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자발적인 원력으로 91년 11월에 창립된 프로그램후원회는 불교방송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는등 회원간 유대강화와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광주방송 개국으로 가족이 날로 늘어가고있는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는 올해들어 1만명 배가운동을 펼치며 지역후원회조직 창립등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후원회 사무총장 정목스님은 "앞으로 실질적인 방송장비들을 기증하겠다"며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법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방포교사로서의 불교텔레비전 발전을 측면 지원하는 불교TV 후원회는 부산 광주에 조직돼 있다.

부산후원회(회장 이윤균)는 1차적으로 부산·경남지역 4백만 불자들의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잡지형식의 후원회보도 발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1백17명, 경남지역 15명이 매달 후원회비와 함께 격려를 보내고 있다.

광주후원회(회장 이범식)도 궁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종로경찰서 경승실 개원 지난 14일 제3별관 2층에 법당과 휴게실을 마련,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경승 태부족…"선도기능 못한다"

197개 위촉 경찰서중 70곳만 활동…활성화 대책 시급

전국 2백51개 경찰서중 경승이 위촉된 곳은 1백97곳, 이중 경승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전 경찰서의 절반도 안되는 1백20여 곳에 불과하며 위촉조차 되지 않는 곳이 5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승실이 있는 곳은 70개 뿐이고 1백81곳은 경승실이 없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이 오는 23, 24일 경승단 연수회를 앞두고 경승위촉 현황 조사에서 나타났다.

매주 법회를 여는 곳은 13곳, 월법회는 활동관서의 33곳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미약할 뿐더러 청소년 선도법회를 여는 곳은 7곳, 윤락여성을 위한 법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승제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비를 자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승들이 재정문제 때문에 중간에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포교원은 경승연수후 경승활동이 미진한 곳은 교체하고 결원된 곳은 새로 위촉하는 등 경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경목은 경승의 총 5백41명의 3배가 넘는 1천867명이다. 경목의에 치안감등 전직 기독교인 경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경찰서협의회 5천254명이 다양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어 불교와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경협의회는 주간 선교지인 「경찰선교신문」까지 발행, 전국 경찰서, 기동대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본말사회의 2백여 주지스님 참석

제2차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 5개 본말사 주지 연석회의가 지난 11일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송월주 총두원장, 동화사·불국사·고운사 주지스님 등 200여명의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지스님들은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공명선거 촉구 △대통령 공약사항인 종교단체의 종토세와 초토세 폐지 △가야산 골프장 건설 철회 △5개 본말사 기구 설치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리산 개발 관련 공약

경남지사 후보 이견

해인사 골프장 건설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도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경남지사 여야 후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 김혁규후보는 지리산 디즈니랜드 개발 계획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자민련 김용균후보는 "산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파괴가 뻔한 지리산 개발사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우도량 화엄학림 현판식

지난 5일 교육법이 정하는 종단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선우도량(상임대표 도법스님) 화엄학림이 20일 오후 1시 남원 실상사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백련사 입구 복합건물

통행지장 시정 요구

서울서대문구 백련사(주지 운암스님)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인 구모씨(민자당)가 홍은동 277-65에 7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라며 각각 5m폭의 기존 2차선 도로중 1개 차선을 2m나 들어와 주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백련사와 주민들은 출퇴근시 병목현상과 급경사로 인한 사고, 홍연국교생들이 통학시 차도통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감사원 서울시청 서대문구청에 도로원상복구를 진정해왔다.

'불교한국승가' 창립

한국의 승가상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한국승가' 창립총회가 도성·비용·덕암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부산 태종사에서 봉행됐다.

대구불교회관 공사중단 방치

철근등 부식 심해 장마철 앞두고 민원 일어

대구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대구불교회관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있고 붕괴의 우려마저 높아 지역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3년 6월 착공해서 9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대구시 동구 신천4동에 건립중이던 대구불교회관은 현재 약 3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지난 1월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장기간의 공사중지로 인해 철골·철근·철물 부식이 심해 주변의 민가 등지에 녹이 날아들고 있어 수차례 민원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여름장마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공사를 수주한 경일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계속 방치될 경우 흙막이 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구조물의 부식이 심해져 붕괴의 위험마저 있다"며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회관 불사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스님들이 대구불교의 중흥을 위해 지난 88년 독립법인인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설립한 뒤 대지 377평 연건평 2361평에 지하2층, 지상8층의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대구불교의 숙원사업이다.

"통합 신도조직 마련을"

10일 재가연대회의 '역할모색' 토론회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재가불자의 역할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10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범불교재가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문옥씨(한국 재가불자연합 공동의장)는 '불교개혁의 평가와 전망'을 통해 "지난해 조계종 개혁은 스님뿐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재가불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는 바람직한 전국재가 조직을 위해서는 먼저 △재가불교인으로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운동 △재가불교의 생산적기반을 확충하는 운동 △조직의 문화적 특성 계발과 다양성 확보 및 통일적 연대운동 △종교간 대화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 박희택(대한민교청년회 회장)은 "승·재가는 상호공양, 열린마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4~5개 종단이 통합한 신도연합단체형식의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청교련, '청소년 밝고 건강하게' 주제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 남용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인식, 고취시키는 캠페인이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의 주최로 지난 17일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됐다.

'우리의 청소년 밝고 건강하게'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한국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은 비원까지 가두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가두행진에는 사물놀이팀의 길놀이와 함께 탈과 현수막으로 분장한 청소년들의 가장행렬이 함께 진행돼 캠페인 문화의 새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은 7월9일 인천지부, 8월13일 대구·경북지부, 9월17일 충북지부, 10월22일 온양 아산지부에서 계속 진행된다.

인권법당 '길상사' 개원

불교인권위, 20일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창립 이후 6년만에 마침내 오랜 숙원이던 인권위 법당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10시 종로구 화동에 인권법당 길상사를 개원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진관스님은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권법당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당마련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인권법당이 마련됨에 따라 장기수 영치금 지급, 정신대 할머니 집 건립기금 마련, 인권상 선정 등 한국인권문제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왔던 불교인권위는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4월 건립기금 마련전을 여는 등 인권법당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교단체 환경운동 저조하다"

불교문화원 설문조사

불자들은 불교의 바루공양 채식식단 무소유사상 등이 환경보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활발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불교문화원(대표 홍무흠)이 지난 3.4일 청정국토한마당에 참가한 불자 3백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절반을 넘는 53.7%가 민간환경단체를 꼽았다. 불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라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반면 불자들의 87.9%는 불교가 환경보전과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해 교계의 활발한 환경운동을 촉구했다.

응답자들은 불교계의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로 사찰주변 환경보호(40.1%), 환경교육 실시(39.0%), 환경단체 설립과 지원(16.8%)을 꼽았으며, 44.5%의 불자들은 환경오염 감시 및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금하선원 이웃돕기 차공양

금하선원(원장 청암스님)은 오는 24일 강남구 일원 공원에서 '청소년 가장돕기 일일 야외 차공양'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쌀 50여 가마를 전달하고, 감로심장재단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기금도 전달한다.

WFB정총 내년 11월 서울개최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및 제11차 세계불교청년회(WFBY) 정기총회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불교청년회는 지난 9일 방콕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8백여명의 각국 대표단은 8월6일 세계명상의 날을 기해 명상(참선)행사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공추불, 해인골프장 반대 성명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월주)은 지난 13일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해인골프장 건설승인의 즉각철회와 원상복구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우리는선우' 속초지부 결성

우리는 선우 속초지부결성을 위한 지역법회가 지난 10, 11일 양일간 속초 신흥사와 원각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법회에서 남지심 박광서 공동대표는 각각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21세기 미래불교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와타나베 망언 사죄 촉구

최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마이치오의 망언과 관련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김문숙)는 지난 7일 '역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가 와타나베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와타나베는 한국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연제구 사암련 창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사암연합회 창립총회가 지난8일 연산동 목화예식장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초대회장에 원장(정수사 주지) 스님을 선출했다.

대구지하철 희생자 위령대제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원장 박관허스님)은 지난 14일 대구 두류공원내 야구장에서 '국가재난 소멸기원 및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희생자 위령대제'를 거행했다.

중앙승가대 발전기원 법회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발전을 위한 기원대법회가 지난 9일 부산 동래구 허심청에서 열려 8백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억5천만원의 기부금이 약정됐다.

불교 성지 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 출발 : 7월 15일, 7월 29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발 : 7월 7일, 8월 4일
·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 보로부두르 사원—
· 출발 : 7월 9일, 7월 23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발 : 7월 11일, 8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 7월 18일, 8월 2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 7월 21일,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9일
· 출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